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Effects of Objective, Subjective variables on the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고 보 선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이 영 호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Doctoral course : Bo-Sun Koh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Lecturer : Young-Ho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the effects of Objective, Subjective variables on the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ata were collected from 254 financial managers in Seoul City. Results show that the Causal model supported hypothesis. Almost of the hypothesis were supported and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variable was mediated between Input variables and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ituation variable. The present study implicated that this model apply to family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I. 서론

가정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족원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은 가

정내에서 이용가능한 인적·물적자원 뿐만 아니라, 가정외적인 환경자원을 적절한 형태로 이용한다. 따라서, 가정내·외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가정경제복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나, 가족원의 욕구달성과 가정의 발전을 위해,

가족원 모두가 가정내·외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지라도, 자원은 언제나 충분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자원은 관리과정을 통하여 변화(증가 또는 감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원은 효용 또는 만족을 최대로 얻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정내·외적자원을 사용하고자 한다.

가정내·외자원에 대한 파악과 효율적인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정의 경제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기준이 되는 생활표준과 현재의 생활수준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는 재정 관리자의 통제의 여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초가 되므로 재정 관리자의 통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 관리자의 통제인지는 자원적정도인지와 현재의 재정상태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적정도와 안정도를 갖는 정도를 말한다(Walson & Fitzsimmons, 1993).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복지에 대해서 경제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연구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로 구별된다. 객관적으로 높은 경제복지를 지닌 가정이 반드시 가정내·외자원을 적절하게 인지하고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높은 만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객관적 경제복지수준은 낮더라도 생활수준과 표준과의 차이를 줄여가면서 내적 통제를 잘하여 현재의 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복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조건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평가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정의 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상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가정경제복지의 기초자료로 제시하여 가정경제복지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변인설정 배경

본 연구에서는 가정경제복지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객관적 요소로 가계소득, 가족원수, 주관적 요소로 생활격차감, 통제의 소재, 그리고 자원적정도인지를 선정하였다.

객관적 요소 중 가계소득은 가족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족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응답자가 자원을 어느정도 적정하게 인지하며,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가계소득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가족원수는 가장 대표적인 요구 요소로 볼 수 있다. 가정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정관리를 하므로 이러한 요구 요소는 자원적정도인지와 재정상태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관적 요인 중 생활격차감은 생활수준과 표준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가계재정관리를 함에 있어서, 현재의 재정상태(생활수준)와 목표로 하는 재정상태(생활표준)간의 차이를 통하여 현재의 가정내·외자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인지하며, 현재의 재정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생활격차감과 자원적정도인지, 재정상태만족간의 관계를 통하여, 생활격차감을 감소시켜 현재의 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통제의 소재는 가계의 재정상태가 관리자 자신의 통제하에 있느냐의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통제의 소재에 따라, 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하는 것과 이를 통하여 인지하는 재정상태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통하여 자원적정도인지와 재정상태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통제의 소재를 제시할 수 있다.

자원적정도인지는 현재의 가정내·외자원의 적정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재정상태만족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자원적정도인지는 가계소

득 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대인관계, 지역사회 등 전반적인 가정내·외자원에 대한 적정도 인지를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계소득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소득적정도인지 척도보다 자원적정도인지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관련변인 고찰

(1) 가계소득

가계소득은 가족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족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가계소득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Davis & Helmick, 1981; Rowland 등, 1985; Mugenda 등, 1990; Danes, 1991; Danes & Retting, 1993; Ujang Sumarwan & Hira, 1993). 즉, 재정관리자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계관리를 하는데 수단이 되는 자원에 접근가능성이 증가하여 자신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원의 목표달성 수단이 되는 가계소득 측정을 토대로 재정관리자가 자원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인지하며,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가계소득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2) 가족원수

가장 대표적인 요구 요소인 가족원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부적인 관계를 보여(Mugenda 등, 1990; Danes, 1991; Danes & Retting, 1993), 재정관리자는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가계의 재정상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관리자는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관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재정관리수행의 요구 요소인 가족원수는 재정관리자가 인지하는 자원적정도와 재정상태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생활격차감

본 연구에서의 생활격차감의 개념은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수준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경험하고, 즐기고, 괴로워하는 것인 반면, 표준은 바라는 어떤 것에 대한 개념 즉, 열망하거나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표준이란 가족이나 개인이 바라고 달성하고자 하는 생활수준을 말하며, 생활수준이란 현재의 생활상태나 조건을 말한다(Davis, 1945).

Danes & Morris(1989)는 가족이 자신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계획하는 요인으로 소비수준과 소비표준간의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가족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앞으로 5년동안 가족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적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소비수준과 소비표준간의 차이와 재정상태에 대한 변화 의도 모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Danes(1991)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은 가계관리 이론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제의 소재,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와 만족에 대한 경로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내적통제를 많이 할수록,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낮게 인지하였으며, 차이가 적을수록, 내적통제를 잘할수록, 차이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내적통제가 이 둘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다.

김순미(1993)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에는 금전제약과 재정적 불안정이, 생활격차에는 월평균소득액과 생활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전제약이 적을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될수록,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하였으며, 생활수준이 낮고 인지할수록, 월평균소득액이 적을수록 생활격차를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할 때,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생활격차감은 경제복지인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최

근 연구에서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을 각각 조사하는 것보다, 생활격차감을 재정만족도의 측정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4) 통제의 소재

통제의 소재는 산출에 대한 개인의 일반화된 기대 혹은 믿음이다. 내적 통제의 소재는 자신의 어떠한 결과가 개인적인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것인 반면, 외적 통제의 소재는 자신의 결과가 강력한 사람(powerful others), 운명, 혹은 운(lucky)과 같은 외적인 힘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Rotter, 1966; Sumarwan & Hira, 1993에서 재인용). 따라서, 내적통제가 약한 사람은 특정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게 되며, 외적인 통제의 소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경제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결정 짓는다고 믿기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목표달성으로의 행동이 감소하여(Hira, Fitzsimmons, & Bauer, 1993), 경제복지인지와 부적으로 관계될 것으로 본다.

F.L. Williams(1985)는 가정생활영역을 7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체계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자원만족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높았으며, 생활의 질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인 복지에 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Danes(1991)의 연구에서는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생활에 대한 내적통제가 적었으며, 내적통제를 잘하는 여성일수록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낮게 인지하여, 둘간의 차이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제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므로,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관리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동기요소로 작용하여 둘간의 차이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Sumarwan & Hira(1993)의 연구에서는 통제의 소재 인지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직접, 간접효과를 보여,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의 중요한 예측인자임을 밝혔다. 즉, 여러가지 삶의 측면에 대한 통제

많이 인지하는 재정관리자일수록,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중요한 의사결정자라고 생각하므로, 통제의 소재인지는 재정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과정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동기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소득적정도인지는 통제의 소재보다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동일한 정도의 자원을 지니고 있는 재정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복지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인지하는 정도는 서로 다르며, 자원을 적절하게 인지하는 재정관리자는 인지한 자원을 생활표준에 적절히 적용할 것이므로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높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내적인 통제의 소재는 가정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통제의 소재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를 감소시켜, 가정의 경제복지인지를 향상시키는 동기요소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5) 자원적정도인지

자원이란 가족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잠재적 효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족은 자원의 소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며(Deacon & Firebaugh, 1988), 만족을 낳는 자원을 얼마나 적절하게 인지하느냐는 가정의 경제복지인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고 본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원적정도인지는 가정의 경제복지와 관련된 경제적 안정 변인으로 측정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이란 '일정한 경제적 생활수준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자간에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관적인 경제적 안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인지로 측정하고 있다 (Yuen, 1976; Danielwicz, 1978; Schram & Hafstrom, 1986; 임 정, 1988; 고보선·임정빈, 1992).

지금까지 소득적정도인지를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만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에 비하여, 최근 연구의 초점인 자원적정도인지는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대인관계, 지역사회 등 전반적인

가정내·외자원에 대한 적정도 인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 선행연구에서 소득적정도인지로 경제적 안정을 파악하여 가정의 경제복지인지를 측정하는 것보다, 자원적정도인지 변인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 복지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포괄적인 경제복지인지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Rowland et al.(1985)은 자원적정도인지는 가족자원을 검증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라고 보고, 자원적정도인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자원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환경접근방법에 근거를 두고, 인적자원(시간, 건강 및 신체에너지, 지식 및 기술), 금전자원(금전과 신용), 환경자원(대인적,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자원)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이 척도는 자원의 적정도인지와 실제 양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객관적 척도와 비교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조영희(1991)가 우리나라에 맞는 자원적정도인지척도를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시간자원, 주거자원, 금전자원, 건강자원, 지식자원, 사회적 지원자원, 지역사회자원, 그리고 심리적 유대자원 등 8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대인적 자원이 사회적 지원자원과 심리적 유대자원으로 세분된 결과를 보였다.

최동숙(1991)은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Deacon & Firebaugh(1988)의 이론을 토대로 가정자원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객관적 자원과 자원인지수준을 투입요소, 가정자원관리행동유형을 과정요소, 가정생활만족도를 산출요소로 이론모형을 구성하여 이들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원인지수준 척도는 PAR 척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내용은 Deacon & Firebaugh, Gross 등의 분류를 토대로, 인적·물적자원으로 구분하여, 인적자원에는 시간, 에너지, 지식 및 능력, 애정, 대인적관계를, 물적자원에는 금전, 공간 및 설비, 근접환경을 포함시켰다. 연구결과, 연구모형은 입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가정자원관리시 가정자원의 증대를 위한 노력 및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인지와

더불어 관리영역에 따라 융통성있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여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Sumarwan & Hira(1993)의 연구에서는 소득적정도인지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의 강력한 예측인자임을 밝혔다. 동일한 정도의 자원을 지니고 있는 재정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복지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인지하는 정도는 서로 다르며, 자원을 적절하게 인지하는 재정관리자는 인지한 자원을 생활표준에 적절히 적용할 것이므로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높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PAR척도(Rowland et al., 1985)를 사용함으로써, 생태학적 접근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중요한 결정요인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을 나타내는 영역이기도 하다(Campbell, 1976: Davis & Helmick, 1985에서 재인용). 또한,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의 질 만족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임을 볼 때(Mugenda, Hira, & Fanslow, 1990),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인 가정생활영역을 모두 포함시킨 개념인 생활의 질 만족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경제복지인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Mugenda, Hira, & Fanslow(1990)도 역시 Deacon & Firebaugh(1988)의 가족자원관리모델을 기초로 하였으며,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생활수준, 저축수준, 자산수준, 부채지불능력, 비상시 지출 충당 능력 등을 조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이 중 저축과 순자산이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이 재정관리과정동안 강조된 순자산을 저축하고 증대시키는데, 고무적이고 가능한 재정관리행동과 그 계획방법이 중요함을 암시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생활의 질 만족에 정적관계를 보여, 이는 주관적인 복지측정의 관련요소로 볼 수 있다.

Sumarwan & Hira(1993)는 시골 가정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결과, 연령, 가계소득, 가정의 순자산, 통제의 소재인지, 그리고 소득적정도인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보다 소득적정도인지와 통제의 소재의 영향력이 더 컸다.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가정의 객관적인 재정상태보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소득이 생활을 하는데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것이 가정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과 더 많은 관계가 있으므로, 주관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복지인지도 역시,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객관적인 경제상태보다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가정의 경제복지를 인지하는데 중요한 예측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과 적절한 자원이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소가 모두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 정도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객관적인 요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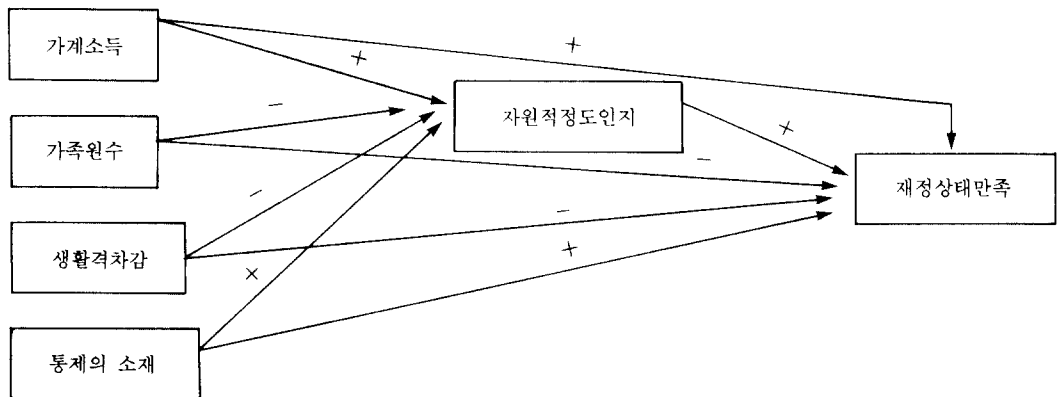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가계소득은 재정상태만족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원적정도인지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을 것이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하여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가족원수는 재정상태만족에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원적정도인지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낮을 것이며,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하여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생활격차감은 재정상태만족에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적으로 자원적정도인지에 영향을 미쳐 재정상태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생활격차감을 낮게 인지할수록, 재정상태에 만족할 것이며, 생활격차감을 낮게 인지할수록, 자원적정도인지가 높아져 재정상태만족이 높



〈그림 1〉 연구모형

을 것이다.

〈가설 4〉 통제의 소재는 재정상태만족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자원적정도인지에 영향을 미쳐 재정상태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내적통제를 잘할 수록, 자원을 적절하게 인지하여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밖에 경로분석에 기초가 되는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하였다.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가계이며, 조사대상은 가정에서 대부분의 재정관리를 수행하는 재정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지역은 서울시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는 1995년 2월 20일 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자료는 254부이다.

4.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생활격차감 척도, 통제의 소재 척도, 자원적정도인지 척도, 그리고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척도로 구성하였다.

1) 생활격차감 척도

이 척도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묻는 척도로, Cantril의 사다리척도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즉, 응답자에게 “때로, 현재의 생활상태와 어떤 상태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상태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께서 느끼시기에, 현재의 생활상태와 귀하께서 바라는 생활상태간의 차이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리커트 형식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격차를 높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통제의 소재 척도

Rotter의 I-E Scale(Rotter's Locus of Control Scale)을 기초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내적 통제의 소재와 외적 통제의 소재 각각 4문항씩으로 구성하였으며, 외적통제의 소재를 나타내는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주어 동일한 방향성으로 만들었다.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원적정도인지 척도

Rowland등(1985)의 PAR척도와 Buehler & Hogan(1985)의 RAP 척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환경자원, 건강 및 에너지 자원, 시간자원, 금전자원, 지식 및 기술자원, 그리고 대인적 자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조합하여 자원적정도인지를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적정도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척도

Davis & Helmick(1985), Danes & Morris(1989), 그리고 Mugenda, Hira, & Fanslow(1990)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의 총소득에 대한 만족, 자산에 대한 만족, 저축에 대한 만족,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조합하여 측정하였다. 5점리커트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가계소득은 110-300만원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계소득은 251만원이다. 가족원수는 조사대상자의 반정도가 4명 즉, 자녀의 수가 2명으로 나타났다. 생활격차감의 평균점수가 3점을 상회하여(5점만점), 응답자는 생활표준과 생활수준간의 차이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가계소득	50 - 100만원	16 (6.3)	가족원수	2 - 3 명	65 (25.7)
	110 - 200만원	115 (45.6)		4 명	117 (46.2)
	210 - 300만원	67 (26.5)		5 - 6 명	63 (24.9)
	320 - 400만원	24 (9.5)		7명이상	6 (2.4)
	420만원이상	22 (7.9)			
계		244 (95.8)*	계		251 (99.2)*
변인	평균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생활격차감	3.383	.996	자원적정도인지	3.182	.654
통제의 소재	3.659	.616	재정상태만족	2.688	.974

* N과 %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응답으로 생긴 결과이다.

중간이상으로 인지하고 있어 현재의 생활수준에 만족하기보다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통제의 소재의 경우는 중간이상의 내적통제를 보여, 대체로 내적통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적정도인지는 중간정도로 자원을 적정하다고 인지하였으며,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중간이하의 평균점수를 보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대상자는 생활격차감을 다소 느끼고 있으며, 내적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난 반면,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2. 자원적정도인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자원적정도인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조사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원적정도인지에 통제의 소재, 생활격차감, 그리고 가계소득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내적인 통제를 잘하고, 생활표준과 수준간의 차이가 적고, 그리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변인인 가계소득보다는 심리적인 변인인 통제의 소재와 생활격차감이 자원적정도인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현재 처한 재정상태보다 그 상황을 인지하는 주관적 변인이 자원적정도인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원수는 자원적정도인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예측한 것과는 반대로 가족원수가 요구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표 2) 자원적정도인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Sig.t
통제의 소재	.298	.058	.281	5.163	.000
가족원수	-.049	.032	-.083	-1.542	.124
생활격차감	-.178	.037	-.270	-4.836	.000
가계소득	1.035E-03	2.395E-04	.245	4.321	.000
상수	2.631	.284		9.248	.000
N = 254	SEE = .556	R2 = .290	F = 25.285	D-W = 1.901	

으로 다시말하면, 가족원이 단순히 소비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족원을 요구원 즉, 소비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가족원을 소비원과 소득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면 가족원의 영향력을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Sig.t
통제의 소재	-.028	.072	-.018	-.388	.698
가족원수	-.079	.038	-.089	-2.078	.039
생활격차감	-.121	.045	-.123	-2.662	.008
가계소득	8.213E-04	2.930E-04	.130	2.803	.006
자원적정도인지	.935	.075	.628	12.480	.000
상수	.335	.284		.860	.391
N = 254	SEE = .656	R2 = .556	F = 61.762	D-W = 1.979	

재정상태만족에 자원적정도인지, 가계소득, 생활격차감, 그리고 가족원수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원을 적정하다고 인지하고, 가계소득이 많고, 생활표준과 수준간의 차이가 적고, 그리고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자원요소인 가계소득은 재정상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객관적인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이 많은 경우는 적은 경우보다 이용가능한 자원활용범위가 크므로 이로 인하여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가계 요구요소인 가족원수는 재정상태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원수가 많을

수록,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재정적 압박이 재정상태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격차감은 재정상태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상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생활표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통제의 소재는 재정상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내적인 통제가 잘 될수록, 현재의 재정상태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인지하여 관리자 자신이 중요한 의사결정자라고 인식하므로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적

통제가 약한 사람은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운명 등 외부의 힘에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달성으로의 행동이 적어서 재정상태만족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4. 경로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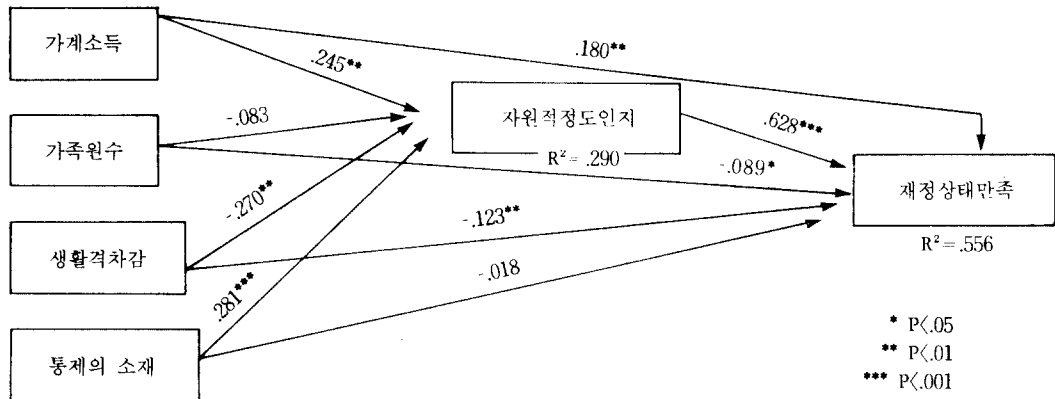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경로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2>와 같다.

1) 직접효과

재정상태만족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인 변인은

〈표 4〉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제변인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계소득	.130	.154	.284
가족원수	-.089	-.052	-.141
생활격차감	-.123	-.170	-.293
통제의 소재	-.018	.176	.158
자원적정도인지	.628	-	.628



〈그림 2〉 경로모형

자원적정도인지, 가계소득, 생활격차감, 그리고 가족원수이다. 이 중 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자원적정도인지와 가계소득으로 자원을 적정하다고 인지할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재정상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상태만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즉, 객관적 요소인 가계소득은 실제적으로 가계를 운영하면서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주관적 요소인 자원적정도인지는 가정내·외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다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가설과 일치한 결과이다.

부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생활격차감과 가족원수로 생활표준과 수준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재정상태만족도가 높았다. 생활격차감은 자신이 설정한 생활표준과 현재 자신이 처한 생활수준간의 차이를 인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러한 차이가 크다는 것은 재정적 표준과 수준간의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재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과 일치한 결과이다.

반면, 통제의 소재는 재정상태만족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자신이 통제의 개념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관리를 하여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후속연구를 통하여 재검증되어야 한다.

2) 간접효과

재정상태만족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인 변인은 가계소득, 생활격차감, 그리고 통제의 소재이다. 가계소득은 직접효과의 영향력보다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자원적정도인지 변인이 중요한 매개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즉, 가계소득이 많으면, 자

원을 적정하게 인지하여 결과적으로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생활격차감도 역시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직접효과의 영향력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생활표준과 수준간의 차이가 적으면, 가정내·외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하여, 재정상태만족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통제의 소재는 재정상태만족에 대하여 유의미한 직접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자원적정도인지를 경유하여 재정상태만족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즉, 내적통제를 잘할 수록, 가정내·외자원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적정하다고 인지하여, 재정상태만족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의 결과는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통제를 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통제가 잘 되면 현존하는 자원을 적정하다고 인지하게 되어, 이것이 결국 재정상태만족을 높게 만든 것이다.

반면, 가족원수는 재정상태만족에 유의미한 간접효과는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관리자가 실제로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가족원수가 많고 적음에는 관계가 없었으나, 재정관리의 결과로 나타난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가설과 불일치한 결과로, 앞으로의 후속연구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경로분석결과, 대부분의 연구가설이 검증되어 가계재정복지 연구에 관한 연구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계재정복지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제변인의 설명력은 직접효과를 통한 설명력보다 간접효과를 통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적정도인지 변인이 독립변인과 재정상태만족 변인간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연구가설이 검증되어 가계재정복지 연구에 관한 연구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재정상태만족에 대하여 직접효과의 영향력보다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원적정도인지 변인은 매개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연구가설 검증결과, 재정상태만족에 대하여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 모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재정복지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가족원수는 재정상태만족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였으며, 통제의 소재는 간접적인 효과만을 보여, 연구가설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에 대한 정교한 척도를 개발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는 주관적인 가정경제복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가정경제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주관적인 가정경제복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본 연구결과, 내적통제가 잘 이루어지면, 재정관리자는 현존하는 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하여, 결과적으로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관리자가 주체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는 내적통제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관리자는 가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외적통제보다는 내적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본 연구의 틀을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하면 관리과정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투입과 산출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2) 고은숙·김명자(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내적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 3)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4) 조영희(1991), "자원적정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41-251
- 5)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7) Danes, S.M. & Morris, E.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Family and Economic Issues*, 10(3), 205-215
- 8) (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A Path Model", *H.E.R.J.*, 19(4), 282-291
- & Retting, K.D.(1993),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65-389
- 9) Hira, T.K., Fitzsimmons, V.S., Hafstrom, J.L., & Bauer, J.W.(1993),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37-256
- 10) Mugenda, O.M., Hira, T.K., & Fanslow, A.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Lifestyles: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 11) Rowland, V.T., Dodder, R.A., & Nickols, S.Y. (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Development of a scale", *H.E.R.J.*, 14(2), 218-225
- 12) Ujang Sumarwan & Hira,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13) Williams, F.L.(1985), "Family and Personal resource management a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Proceedings of a workshop sponsored by the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section of the A.H.E.A.*, 237-250